

# 배터리 용량·저장 공간 ↑... 노란펜으로 흥행 다시 쓴다

(S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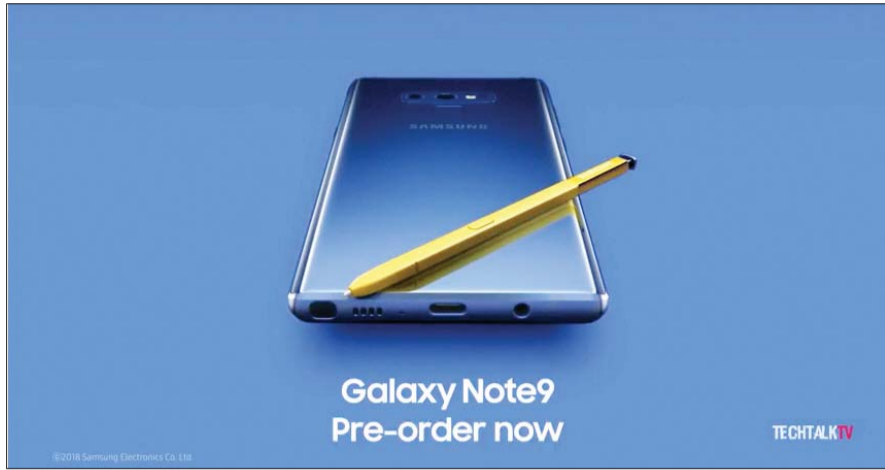
## 삼성 '갤럭시노트9' 공개 D-1

화면 0.1인치 키우고 베젤 얇아져 노란색 'S펜', 2.4GHz 블루투스 탑재 음악제어·원격촬영·타이머 등 편리 스마트워치·AI스피커도 출격대기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9'의 공식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갤럭시S9'의 판매 부진 등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갤럭시노트9로 분위기를 반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9를 전작보다 3주가량 일찍 출시하며 마케팅 역량을 총동원해 전작인 '갤럭시노트8'의 판매량을 뛰어넘는다는 계획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9은 외관상 큰 변화는 없지만 기능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노트9의 화면은 노트8과 같은 18.5대 9의 비율을 유지하지만 6.3인치에서 6.4인치로 커지며



갤럭시노트9의 공식광고로 추정되는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

전면의 상·하단 베젤(테두리)이 얇아진다. 후면의 듀얼카메라는 전작과 동일하게 수평으로 위치하되, 렌즈 옆에 위치했던 지문인식 센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하단으로 이동했다.

여기에 8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 1200만 화소의 후면 듀얼 카메라를 갖추고 퀵캡 스냅드래곤845와 엑시노스9810 칩셋이 탑재될 전망이다.

주목할 부분은 저장 용량과 배터리 수명이다. 갤럭시 노트9은 6기가바이트(G

B) 램(RAM)에 최대 512GB의 저장 용량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용자가 512GB 마이크로SD 카드를 장착하면 1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저장 용량을 갖추게 된다. 1TB는 고화질인 4메가바이트(MB)의 사진 26만장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이다.

배터리 용량도 4000밀리암페어(mAh)로 갤럭시 노트8의 3300mAh보다 증가했다.

노란색의 S펜도 기대할 만하다. 삼성

전자는 지난 6월 공개한 언팩 초청장 영상에서도 노란색 S펜의 버튼을 클로즈업해 보여주며 향상된 S펜의 기능을 예고했다. S펜에 최초로 2.4기가헤르츠(㎐)의 저전력 블루투스를 탑재해 음악 제어, 원격 촬영, 타이머 설정 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모컨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고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는 128GB 모델은 109만원대, 512GB 모델은 135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갤럭시노트9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해 전작보다 더 많이 판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9를 오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공개한다. 한국시간으로는 10일 0시다. 삼성전자 뉴스룸과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지휘하는 고동진 무선사업부장(사장)이 갤럭시노트9의 공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직후인 10일부터 미국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하며 국내시장에서는 14일부터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공식 출시일은 24일이 유력하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9의 공개와 함께 스마트워치 신제품인 '갤럭시워치'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신제품 갤럭시워치는 지난 2016년 선보인 '기어S3'에 이어 약 2년 만에 나오는 신제품으로 삼성전자는 '기어'에서 '갤럭시'로 브랜드를 바꿔 선보일 예정이다. 갤럭시워치는 전작의 배터리 용량인 380mAh 리튬이온(Li-ion)에서 470mAh로 확대해 배터리 성능을 개선했다. 또 스포츠 기능을 향상시켰으며 삼성전자의 AI 비서 빅스비를 탑재해 음성명령을 통해 여러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AI(인공지능) 서비스 '빅스비'를 탑재한 첫 AI 스피커도 이달 중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3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 박람회(IFA) 2018'에서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품명은 '매그비' (가칭)로, 가격은 약 33만원으로 예상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LG전자는 이달 12일까지 진행되는 러시아 최대 유스포럼인 '테라 사인치아 2018'을 공식 후원하고 있다. 유스포럼 참가자들과 LG전자 러시아법인 임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 LG전자, 러시아 유스포럼서 젊은층 공략

'테라 사인치아' 4년 연속 공식후원 프리미엄 가전 설치로 우수성 알려

LG전자가 러시아 최대 유스포럼인 '테라 사인치아 2018'에 참가해 현지 젊은층 공략에 나섰다 8일 밝혔다.

LG전자는 6월 말부터 이달 12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미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테라 사인치아 2018을 공식 후원하고 있다. 행사장 곳곳에 올레드 TV, 인스타뷰 냉장고, 트윈워시 세탁기 등 프리미엄 가전을 설치해 참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테라 사인치아

는 러시아 정부가 진행하는 청년교육포럼이다. 러시아 전역에서 선발된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 리더 6000여 명이 합숙하며 과학, 정치, 사회 등의 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4년 연속 글로벌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 포럼을 공식 후원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LG전자는 '선행하는 세대' 세션에서 ▲현열 캠페인 ▲LG 광과오븐을 이용한 요리교실 ▲LG 홍보대사인 러시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스타니스라브 체르체소프의 초청 연설 등을 진행했다.

/구서윤 기자

## SK브로드밴드 3억 달러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

SK브로드밴드는 3억 달러(약 3375억원)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채권 발행 주관은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BNP파리바, HSBC가 맡았으며 이번 조달한 금액은 오는 10월 만기도래하는 해외채권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재무구조 개선에 힘입어 미중 무역분쟁 등 불안정한 글로벌시장 환경 하에서도 스프레드(가산금리)를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6일 아시아·유

럽시장에서 글로벌본드 발행을 선언한 후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총 20억달러(약 2조2500억원)의 주문이 몰렸다. 최초 제시한 미국국채 5년물 1.45% 수준의 가산금리 대비 0.275% 낮은 1.175%의 가산금리에 발행을 마무리했다.

이는 올해 초 글로벌본드를 발행한 SK텔레콤과 동일한 수준이다. 최종 발행금리는 3.994%로 정해졌으며, 쿠폰금리는 3.875%로 책정됐다.

발행한 글로벌본드는 오는 13일 납입을 마친 후 싱가포르거래소(SGX)에 상장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 현대차, 상용차 전용 홈페이지로 소통 강화

### '현대 트럭·버스' 개설

트럭·친환경 버스 등 8종 차량 대상 VR콘텐츠로 사실감 있게 경험 가능

현대자동차가 상용차 전용 홈페이지인 '현대 트럭·버스'를 개설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8일 현대차에 따르면 새롭게 선보인 현대 트럭&버스 웹사이트는 현대차 상용차만의 웅장함과 감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와이드한 화면 구성을 통해 직관성을 높였으며 외부 활동이 많은 상용차 고객들을 고려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사이트로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상용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 상용차 브랜드 중 처음으로 가상현실 콘텐츠를 마련해 차량을 사실감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현실 콘텐츠는 중·소형 트럭부터 대형 트럭, 친환경 버스



현대차 상용차 전용 홈페이지 '현대 트럭&버스' 메인 이미지.

까지 현재 판매하고 있는 8종의 차량을 대상으로 제작했으며 고객들은 마우스를 이용해 직접 차량의 내외관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브랜드 스토리·디자인·연구소와 공장 등 상용차만의 브랜드 콘텐츠와 보증수리 안내·상용차 멤버십 등 상용차와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구성했다.

한편 현대차는 디지털 소통 강화의 일

항으로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도 현대 트럭·버스 계정을 론칭했다.

현대차는 플러스친구를 통해 상용차 관련 콘텐츠는 물론 졸음운전 방지 팁, 자동차 캠핑장 추천 등과 같은 라이프 콘텐츠를 제공하며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아시아나항공, 2분기 영업이익 380억... 11% 감소

유류비·영업비 지출 증가 영향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분기 매출액 1조6429억원, 영업이익의 380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2분기 매출 1조 6429억원은 창사 이후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510억원으로 10%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고유가 등으로 38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역대 최대 2분기 매출 실적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및 국제 여객수요의 지속 증가(전년 동기 대비 국내 10%, 국제 12%)와 화물사업의 성장세가 유지되는 등 영업부문 전반에 걸친 고른 실적 달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2분기



영업이익의 주된 감소 주요인은 유류비 지출 증가(1000억원 증가)로, 영업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상반기 영업활동 현금유입 4120억원 및 비핵심자산(금호아시아나 그룹 사옥 및 CJ 대한통운 주식) 매각 등 4009억원의 현금유입으로 차입금 규모를 지난해 말 기준 4조5700억원에서 상반기 3조 6137억원으로 4433억원을 감축시켰다.

7월말 기준으로는 3조 3319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2818억원을 추가 감축시켰으며, 특히 연말까지 차입금은 3조2000억원, 단기차입금 비중은 30% 수준으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운용리스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자회사 기업공개(IPO) ▲영구채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상반기 효율적인 주요 요인으로 여객 영업에서 미주 노선 매출이 13% 증가했으며 유럽 노선의 매출도 10% 증가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5월 1일 미주 노선 매일 운항 및 베네치아 노선 신규 취항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양성운 기자